

# AHP 기법을 이용한 기업부패지수 측정과 개발 \*

## Development of Corporate Corruption Index: Approach of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Method

이 정 섭(Lee, Chung Seop)\*\*

### ABSTRACT

Despite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economic, few studies have been devoted to corporate corruption. The majority of corruption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public sector. This study introduced measurement model of corporate corruption index that was problems of corporate corruption.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relied on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using survey of company employee and expert group, which established weight by paired comparison.

Evaluation areas of corporate corruption were mainly composed of legitimacy, transparency, and soundness. The evaluation index system was composed of 19 indexes: 6 legitimacy, 7 transparency, and 6 soundness items. Consequently, based on analysis of three hundreds sample data, "political funds offering" showed main index of corporate corrup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made an effort for the improvement of law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for decreasing of corporate corruption.

Key Words: Corporate Corruption, Ethics Management,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3-005-B00005).

\*\* 서울시립대학교

## I. 서론

최근에 부패 문제는 국제적으로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패가 결코 관련 조직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득이 되지 않아 조직에게 비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며 관련자들에게도 해가 된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Ackerman, 2002). 부패와 관련된 최근 연구들에서 부패는 경쟁력 창출 요인을 침해하고 경제주체들의 바람직한 경제행위를 방해하여 투자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발전과 성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Gupta et al., 1998; Habib & Zurawicki, 2001; Husted, 1999; Mauro, 1995; Myrdal, 1968; Tanzi, 1998; Tanzi and Davoodi, 2000). 결과적으로 부패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해가 되는 요인으로 국제적으로도 국가간 공정 경쟁과 자유 무역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제적으로 반부패 활동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UN은 1996년에 전세계 국가의 공직자들을 위한 반부패 행동강령인 「국제거래의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문」을 작성·공표하여 국제적으로 부패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OECD는 1999년 2월에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이란 반부패 국제규범을 공표하였다. 1993년에는 국제적인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가 창설되었다. TI의 주요활동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패지수인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이하 CPI)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1998년 12월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러한 부패 문제의 국·내외적 공론화 과정들은 부패가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모든 국가들에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기업이며 국부는 기업 활동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기업이 경제성장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일(should not)”을 종종 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분식회계, 탈세, 뇌물 공여,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등의 잘못된 기업 행태가 사회 문제화 되어 기업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갖추도록 요구받고 있다. 기업부패는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며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어렵게 한다. 부패한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은 결국 생산비를 높여 제품 가격의 인상이나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부담전가로 이어져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떨어뜨린다. 현재와 같이 투명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환경 내에서 부패한 기업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으며 존폐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기업부패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에 비해 그간의 부패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공공 부문에 치우쳐 많은 연구물들이 산출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사부문인 기업과 관련한 부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여 기업의 부패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사부문의 현실세계에서 윤리경영(ethics management)에 관한 이슈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상반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기업부패와 관련하여 주요 요인들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기업부패 관련지수들에 대한 기존 문헌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이에 부합되는 기업부패지수 측정모형을 개발한다. 둘째,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대표적인 7개 업종들을 대상으로 기업부패 수준을 측정하고 업종별 부패수준을 분석·평가하여 기업반부패를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II. 배경

### 1. 부패와 기업부패

부패에 관한 정의는 이해당사자간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명확하게 이를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을 갖는다(Jacobs, 2004). 하지만, 부패 연구와 관련된 기존 문헌들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공·사 부문에서 부패를 일반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남용(the abuse of public power for private benefit)”으로 정의하고 있다(Fantaye, 2002; Kaufmann & Siegelbaum, 1996; Tanzi, 1998).<sup>1)</sup> 이러한 부패에 관한 정의는 세부적으로 기업 대 정부간에 통용될 수 있으며, 기업 대 기업으로 논의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견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패에 관한 정의를 ‘권력의 남용’으로 논의할 경우, Clinard(1990)는 기업부패를 “기업권력의 남용(the abuse of corporate power)”으로 간주하여 상기에서 논의된 부패에 관한 정

1) 여기서 사적 이익은 금전적 이득(financial gain)을 의미하며 전반적으로 부패는 뇌물, 상납 등을 통한 부의 착복(misappropriation of wealth)과 지대 추구(rent seeking)의 개념이 포함된다(Kaufmann & Siegelbaum, 1996).

의 범주 내에서 기업부패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최근 들어 기업들이 세계화·다국적화되고 큰 규모를 가짐에 따라 거대해진 기업이 종업원, 주주, 소비자, 공공 부문들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함에 따라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기업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부패와 기업윤리에 관한 관심이 학계 및 현업에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몇몇 부패한 기업들의 행태로 인해 국제 사회가 받은 충격이 커 기업들에게 윤리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기업의 투명성”을 글로벌 표준으로 내세웠던 미국이 자국 기업들인 엔론과 월드컴사가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2002년에 파산함에 따라 미국에게 있어 부패 기업들의 회계부정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일정기준의 기업윤리시스템의 구비여부를 거래소 상장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4).

일본도 식료품업체인 「유끼지루시(雪印)」는 사용이 금지된 식자재를 원료로 사용하다가 2001년에 도산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내도 2002년에 SK의 분식회계사건이 불거져 재벌 그룹의 기업부패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기업부패 사례들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기업 경영에서 반부패 운동 혹은 기업윤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기업들이 윤리적 행동과 윤리경영을 하여야 하는 가장 큰 당위성은 기업 경영이 투명해야만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사회적 존경심(respect)을 얻어 기업 이미지 향상을 통한 판매증진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2. 기업부패의 발생과 유형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부패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계형 부패(petty corruption)와 권력형 부패(grand corruption)이다(송하울, 1999). 생계형 부패는 가족 부양을 위해 소규모 경제지대에 의존하는 유형이며, 권력형은 주로 정치가와 고위 공무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규모 경제지대를 창출하는 정책결정에 의존하는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생계형 부패는 급행료(speed money), 윤활제(grease payment) 등으로 표현되는 각종 뇌물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생계형 부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체제에 내부화되는 과정을 거쳐 체제 자체의 특성으로 변화하여 권력형 부패 이상의 악영향을 사회에 줄 수 있다. 이러한 생계형 부패 원인의 예로는 공직자가 낮은 급여로 인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낮

은 가치를 부여할 때, 승진에 따른 급여의 상승이 적을 때, 사회보장 체제가 완전하게 구비되지 못할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 부패하게 된다.

그리고 권력형 부패의 주요 예로는 항공기, 선박, 통신장비, 군사장비 등의 구입, 주요 산업을 위한 자본재의 구입, 댐, 고속도로, 공항 등의 대형 건설공사, 석유, 비료, 시멘트 등의 대규모 구입, 대규모 컨설팅 등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형 부패는 주요하게 정부와 기업간의 정경 유착을 통한 부패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정경 유착은 기업 연관형 부패로 논의할 수 있어 기업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제공할 때 발생한다.

한편, 기업부패가 발생하는 원인과 유형에 대해 Argandona(2001)는 기업부패의 유형을 세 가지로 논의하였는데, 첫 번째는 기업이 자사의 이익(company's benefits)을 도모할 때 부패가 발생되며, 이는 관리자 또는 종업원들이 회사 이익을 위해 뇌물 제공, 금품 강요 등을 행할 때 일어난다. 두 번째 유형은 관리자 또는 종업원들이 자신의 이익(manager or employee's benefits)을 고려할 때 발생하며, 이의 예로는 구매 담당 관리자가 공급자로부터 커미션(commission)을 받거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호감에 따라 직원을 선발하는 경우 등이다. 마지막 유형은 회사 이익에 기초하여 관리자 또는 종업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할 때 발생된다. 예를 들면, 판매원이 회사를 위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구매자에게 커미션을 제공한 후 회사로부터 보상(예: 보너스)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3. 기업부패측정과 관계된 연구

본 연구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기업부패 측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고찰했을 때, 기업 관련 부패 측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Reinikka & Svensson(2002)에 의하면, 정보은폐 가능성으로 인해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절에서 부분적으로 기업 부패 측정과 관계된 기존의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국제투명성기구의 뇌물공여지수

TI(2002)는 CPI와 별도로 기업 수준에서의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이하 BPI)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BPI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경영 활동 시에 외국의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이러한 BPI는 1999년 OECD 뇌물방지 협약의 발효 이후에 작성되었다. 즉 BPI는 OECD 협약 준수에 대한 감시와 협약에 가입한 정부들이 뇌물을 효과적

으로 예방하고 특정 분야에서 얼마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권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I는 자신의 웹 사이트에 CPI와 더불어 BPI의 최근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의 BPI 자료는 2002년도에 작성된 지수이다.

2002년도 BPI의 설문은 갤럽국제연합(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과 공동으로 실시되었고, 설문기간은 2001.12~2002.3으로 4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설문 대상 국가들은 세계경제에서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는 21개국이다. 또한, 대상 표본들은 국내 및 외국 기업들의 경영자 835명이며, 이들과 인터뷰 형식의 설문 방식이 사용되었다. 2002년도 BPI의 부패 관련 주요 설문 영역 및 항목들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TI의 BPI 설문 내용

설문 영역	설문 항목	주요 설문 결과
◆ 2002년 TI의 BPI 지수	▶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다음 국가들 중 기업이 이 나라(응답자의 거주국가)에서 사업을 영위/성공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은 얼마인가를 표기해 주십시오(11점 척도, 0점: 매우 높다~10점: 매우 낮다).	● 투명한 국가 순위로 1위: 호주(8.5점) 2위(공동): 스웨덴(8.4점), 스위스(8.4점) 18위: 대한민국(3.9점)
◆ 비즈니스 분야에서 뇌물 제공 여부	▶ 다음 비즈니스 분야들에서 이 나라(응답자의 거주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11점 척도, 0점: 매우 높다~0점: 매우 낮다)	● 부패 사업 분야 순위로 1위: 공공 토목 공사/건설(1.3점) 2위: 무기와 국방(1.9점) 3위: 오일과 가스(2.7점)
◆ 비즈니스 분야에서 뇌물 제공의 크기	▶ 앞의 비즈니스 분야들 중 뇌물을 가장 많이 지불해야 하는 두 분야는 어느 것입니까?	● 부패 사업 분야 순위로 1위: 공공 토목 공사/건설(46%) 2위: 무기와 국방(38%) 3위: 오일과 가스(21%)
◆ 부패 해결 방안	▶ 만일 당신이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기관들을 활용할 경우, 당신이 선택하는 첫 번째 기관은 어디입니까?	● 부패 문제 해결 순위 1위: 법정(21%) 2위: 정치인(19%) 3위: 경찰(13%)
	▶ 전반적으로 과거 5년 동안 이 나라(응답자의 거주 국가)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부패 수준은 얼마나 변화하였습니까?	● 공무원들의 부패 수준 증가한 수준: 23% 동일한 수준: 37% 감소한 수준: 27% 모름: 13%

	▶ 다음 요인들 중 과거 5년 동안 이 나라(응답자의 거주 국가)에서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 수준을 중요하게 증가시킨 요인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부패의 증가요인</li> <li>1위: 부패의 공적 허용(67%)</li> <li>2위: 법규의 타락(59%)</li> <li>3위: 고위직 공무원의 면제(53%)</li> </ul>
	▶ 다음 요인들 중 과거 5년 동안 이 나라(응답자의 거주 국가)에서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 수준을 중요하게 감소시킨 요인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부패의 감소요인</li> <li>1위: 언론기관들의 자유(52%)</li> <li>2위: 정부의 반부패 조사활동(48%)</li> <li>3위: 정부의 투명성 활동(47%)</li> </ul>
◆ 불공정한 이득을 얻기 위한 정부의 수단들	▶ 정부가 사용하는 불공정한 수단(들)은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불공정한 수단들</li> <li>1위: 외교적 또는 정치적 압력(66%)</li> <li>2위: 금융상의 압력(66%)</li> <li>3위: 상거래, 가격 이슈 등(66%)</li> </ul>
◆ 국가가 비즈니스를 유지/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불공정한 수단들	▶ 상기의 불공정한 수단들 중 뇌물공여를 제외하고 국제 상거래와 투자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세 정부들은 어디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불공정한 수단들</li> <li>1위: 미국(58%)</li> <li>2위: 프랑스(26%)</li> <li>3위: 영국(19%)</li> </ul>

2) 박정수 외(2000)의 기업부패지수 측정모형

박정수 외(2000)의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업부패지수의 측정체계를 정립하여 그 의의를 갖는다(<표 2> 참조). 이 연구는 전문가 회의 및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부패지수 측정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지표체계를 개발하였다. 설문은 경영자, 경영·경제학 전공의 교수(서울 소재) 및 연구원, 공무원(공정거래위원회),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총 205명이 응답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2> 박정수 외(2000) 연구의 기업부패지수의 지표체계

합법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산권 침해</li> <li>• 탈세</li> <li>• 부당노동행위</li> <li>• 공금유용</li> <li>• 뇌물수수</li> <li>• 주식내부자거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은폐</li> <li>• 분식결산</li> <li>• 인사비리</li> <li>• 이중장부 작성</li> <li>• 비자금</li> <li>• 무자료거래</li> <li>• 정부로부터 특혜</li> <li>• 과도한 접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의 중소기업영역 침해</li> <li>• 불량품 제조</li> <li>• 작업장 환경</li> <li>• 환경오염</li> <li>• 부동산 투기</li> <li>• 산업폐기물 수출입</li> <li>• 고용차별</li> <li>•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li> <li>• 허위·과대광고</li> <li>• 성희롱</li> <li>• 고의적 임금 체불</li> </ul>

2000년 당시의 연구결과에서 국내 기업들의 부패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지표들에 대해 전문가 70% 이상이 탈세, 정치자금, 허위·과대광고, 정보 은폐, 주식내부자거래, 분식결산, 환경오염, 주식의 위장 분산, 하도급거래비리,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해, 무자료 거래, 비자금, 낙하산 인사, 뇌물수수 등이 주요한 기업부패 지표들이라고 응답하였다. 그중 이들 중 가장 문제가 되는 5개 지표를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탈세, 뇌물수수, 정치자금제공, 분식결산, 이중장부 작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는 기업부패를 세 가지 측면인 합법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으로 파악하는 근거로 기업부패 또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과 관련하여 소극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는 정도(합법성)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직성과 정보공개 수준(투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업행동의 소극적 영역을 벗어나 기업 활동의 적극적 영역으로 고려되는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이행과 기여(사회적 책임성)를 주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다.

### III. 기업부패지수 측정모형과 연구방법

#### 1. 기업부패지수 측정모형

제 II 장에서 논의된 기업부패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으며, 과거 연구들에서 기업부패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연구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부패 연구에 관한 소수의 문헌들과 국·내외에서 발생한 기업부패 사례들을 근간으로 기업부패를 “기업이 가진 권력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남용하여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기업이 이익을 취하고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기업부패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 3>의 19개의 세부 평가지표들에 의해 기업부패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행한 기업부패지수 관련 측정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이와 관련된 근거 문헌들도 <표 3>에 함께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업부패 관련 주요 평가 항목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합법성(legitimacy), 투명성(transparency), 건전성(soundness)과 관련한 세부 기업부패의 평가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일반인(혹은 기업내부직원)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이들이 지각한 국내 기업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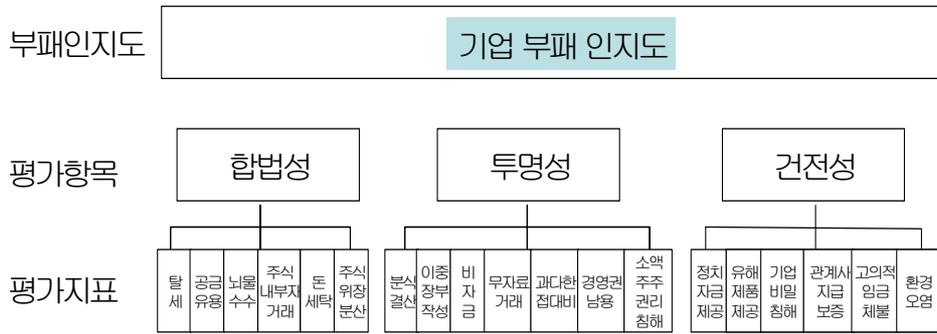
사하였다. 기업부패의 평가항목으로 합법성, 투명성, 건전성을 설정한 배경에는 과거 문헌과 전문가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sup>2)</sup> 합법성은 박정수 외(2000) 연구에서 논의한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투명성은 이들의 연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이는 전문가들의 심층 면접에서 투명성이 “회계”와 “기업지배구조”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지표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되어 이를 고려하였다. 즉, 박정수 외(2000) 연구는 투명성을 단지 회계 투명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 기업 회계에 대한 정보의 정직성과 정보공개 수준만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회계 투명성(<표 3>의 분식결산에서 과다한 접대비까지)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관련 평가지표(<표 3>의 경영권 남용,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추가하였다. 또한, 건전성은 기업윤리와 신뢰 구축에서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기업 경영 활동의 건전성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부패 측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전성 항목의 세부 평가지표들은 기업 경영의 반사회적 활동들로 구성되었다(김기찬 외, 2002.). 기업 활동의 반사회적 지표들로 구성된 건전성은 기업이 한 사회의 구성원(체)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으로도 재해석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의무로서 이는 기업의 지위, 기능, 행위 등에 따라 기업에게 부과된 의무의 범위라 할 수 있다(Barry, 1983). 오늘날 기업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이 단지 이윤추구를 위한 경제적 활동만을 영위할 경우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지 않고 반사회적인 경제적 활동만을 추구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의 편재, 환경오염, 소비자 피해 증가(예: 일본의 식료품업체인 유끼지루사, 국내의 불량만두파동 등)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사회에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전락하여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사회적 지탄과 압력을 받을 경우, 기업의 존폐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임은 자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대한 근거 문헌은 주요하게 박정수 외의 연구(2000)가 주요하였다. 또한, 전문가 회의는 2004년 3월경에 학계와 연구기관에 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기업부패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를 논의하여 합법성, 투명성, 건전성 등의 평가항목과 이에 부합되는 세부 평가지표들을 설정하였다.

<그림 2> 기업부패지수의 측정모형(AHP 모형)



<표 3> 기업부패지수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변수의 측정 부분)	근거 문헌들
합법성	탈세	김기찬 외(2002), 박정수 외(2000), 원혜옥(2001), Blanke, et al(2003), TI(2002), Reinikka & Svensson(2002; 2003)
	공금유용	
	뇌물수수	
	주식내부자거래	
	돈세탁	
	주식위장분산	
투명성	분식결산	김기찬 외(2002), 강명현(1999), 박정수 외(2000), 이수희(2002), Kaufmann, et al(2002), Porter(2003)
	이중장부작성	
	비자금	
	무자료거래	
	과다한 접대비	
	경영권 남용	
소액주주 권리 침해		
건전성	정치자금 제공	강명현(1999), 경실련(2003), 김기찬 외(2002), 도태영·류근관(2000), 송하울(1999), 이종영(1998), Clinard(1990), Porter(2003)
	유해 제품 제공	
	기업 비밀 침해	
	관계사 지급 보증	
	고의적 임금 체불	
	환경오염	

## 2. 연구방법

### 2.1 AHP 기법의 적용

본 연구의 모형은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한 가중치 설정모형이다. 설문조사를 통한 AHP 기법은 가중치 산출 방법에서 속성의 강제적인 쌍별비교(paired comparison)를 통해 "강제비교(forced comparison)"를 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다. AHP는 목표 값들 사이의 중요도(weight)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각 대안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기법이다. 결국 다수의 목표/평가기준/의사결정주체가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문제를 계층화하여 해결하는데 적합하다. 주어진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한 후 상위계층에 있는 한 요소의 관점에서 직계 하위계층에 있는 요소들의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를 구함으로써 최하위 계층에 있는 대안의 우선순위(priority)를 구하게 된다.

Saaty(1980)는 AHP 모형 설계시 사용된 전문가 지식의 신뢰도에 대한 지수를 제시하였다. 이를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이라 부른다. 이는 이원비교 과정에서 전문가의 판단과정이 완벽한 일관성을 유지할 경우 CR 값은 0에 가까워 지지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CR 값이 0.1 이상을 나타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서수적 순위에 무리가 있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간 일관성 비율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Saaty & Kearns(1985)의 연구에서는 CR이 0.2 이하의 범위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Roh et al.(1996)의 연구에서도 일관성 비율이 0.2 미만인 경우에도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해 설정된 가중치 사이에는 대체로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찾기 위하여 각 계층의 가중치를 종합하여 전체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고 있다(Kim et al., 1998).

### 2.2 표본, 자료수집과 척도의 구성

기업부패 요소간의 중요도 측정 및 대표적인 7개 업종(섬유업, 기계관련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건설업, 전기관련 제조업, 전자/통신 장비 제조업, 유통업)의 부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총 300명의 일반인/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자료수집 방법은 주요하게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표본 중 일반인은 200명으로 이들은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및 자금 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7개 업종의 기획/재무/회계 부문에 속한 기업 내부의 직원들이다. 설문초기에 세 가지 업무 영역을 보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설문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2년 미만의 경력자와 24세 이하는 설문 응답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나머지 100명은 전문가 집단으로 회계사/세무사/경영학 및 경제학과 교수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러한 설문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판단되는 조사기관(동서리서치)을 선정하여 본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3주가 소요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설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AHP 기법을 통해 평가항목과 평가지표간의 쌍대 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AHP 기법의 분석에 알맞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9점 척도로 구성된 쌍대 비교 척도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평가대상이 되는 7개 업종별 부패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평가지표 별로 동의도를 측정하였다(<부록 II> 참조).

#### IV. 자료 분석과 논의

기업부패지수와 관련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간의 AHP 기법을 적용한 중요도를 산출함에 전문가 집단, 일반인 집단, 이들을 합한 전체 집단 순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부패지수의 주요 평가항목들이라 할 수 있는 합법성, 투명성, 건전성 등에 관한 중요도를 먼저 산출하고, 세부 평가지표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절차를 밟았다.

##### 1. 기업부패지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분석

###### 1) 전문가 집단

###### (1) 1단계 평가항목간의 중요도

전문가 집단이 응답한 가장 상위 수준인 합법성, 투명성, 건전성 간의 중요도 평가 자료를 기하평균의 행렬로 구성된 후, 이러한 행렬 자료를 바탕으로 각 요인의 중요도를 산출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 단계로 분류된 평가항목 중 투명성의 중요도가 0.376 수준이고, 다음으로는 합법성 0.322, 건전성 0.302로 나타났다. 결국 전문가들이 기업의 부패정도를 인식할 때 투명성은 38%, 합법성 32%, 건

전성 30%로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일관성 비율은 0.0001로 측정되고 있는 평가항목들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 (2) 2단계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각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지표간의 전반적인 중요도 측정 결과는 <표 4>의 우측에 나타내었다. 평가항목간의 중요도 합은 포함되어 있는 각 영역의 중요도와 같으며, 이는 계층적 의사결정기법의 분해의 원리로 상위 단계의 중요도가 그 하위 단계로 그대로 이전된 것을 의미한다. 평가지표 단계를 구성하고 있는 평가지표간의 전반적인 중요도는 개별 평가지표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통한 것이 아니라 상위 단계인 평가항목간의 중요도 결과와 항목 내의 평가지표의 중요도 결과를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또한, 표의 괄호 안 숫자는 해당 항목 내 평가지표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 것으로 합하면 1이 된다. 평가지표간의 전반적인 중요도 평가는 19개의 세부 평가지표들 중 합법성의 '공금유용'이 0.065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순으로 투명성의 세부 평가지표들인 '분식결산, 비자금, 정치자금제공, 소액 주주 권리침해, 이중장부작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평가항목에서 높게 평가되었던 투명성 항목내의 평가지표들이 합법성과 건전성의 평가지표들보다 다소 높음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각 평가항목내의 세부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평가 결과를 자세하게 살펴본다.

### (3) 합법성내의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기업 활동의 합법성 항목내의 평가지표들인 탈세, 공금유용, 뇌물수수, 주식내부자 거래, 돈세탁, 주식 위장 분산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에서 '공금유용'의 상대적 중요도가 0.201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 다른 평가지표간의 중요도가 대부분 비슷한데 비해 '공금유용'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다음으로 뇌물수수, 돈세탁, 주식내부자거래, 주식 위장 분산, 탈세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표 4> 우측의 Data Matrix에 나타난 수치는 한 항목과 다른 항목들을 비교했을 때, 1이상의 수치는 해당 항목이 비교하고 있는 다른 항목들보다 중요(우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금유용은 모든 열의 평가지표와 비교하여 1이상의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공금유용이 모든 평가지표들과 비교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뇌물수수' 지표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공금유용과 뇌물수수 지표들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소유자(혹은 소유경영자)가 기업 경영에 있어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권력계층에 뇌물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경영자 자신의 이득과 자사를 위한 특혜를 얻고자 하는 권력형 부패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는 ‘정경유착’의 유형들로 고려해 볼 수 있다.

#### (4) 투명성내의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투명성 항목내의 세부 평가지표는 제 III 장의 제1절에서 논의되었듯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투명성 항목을 회계(분식결산에서 과도한 접대비까지)와 기업 지배구조(경영권 남용과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관계된 평가지표들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집단의 평가지표들의 중요도 평가결과는 상대적 중요도에서 0.161인 ‘분식결산’이 7개의 투명성 항목의 평가지표들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비자금, 소액주주 권리 침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투명성 항목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주요하게 인식된 평가지표는 분식결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식결산은 국내·외 기업들의 회계 부정 사건들과 주요하게 맞물려 있어 기업 조직들은 기업 회계 부문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감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표 4>의 행렬에서 과도한 접대비는 모든 열의 평가지표들과 비교하여 1보다 작은 값을 가짐에 따라 과도한 접대비는 투명성의 다른 평가지표들과 대비하여 비교 열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건전성내의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건전성 항목내의 평가지표들인 정치자금 제공, 유해 제품 제공, 기업 비밀 침해, 관계사 지급 보증, 고의적 임금 체불, 환경오염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는 <표 4>에 나타낸바와 같다. 결과적으로 ‘정치자금 제공’의 상대적 중요도가 0.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의적 임금 체불, 환경오염, 유해 제품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 중요도 값에서 0.171, 0.172, 0.172 등으로 드러나 그 편차는 크지 않다. 결국 정치자금 제공이 주요 지표로 등장하고 있어 정부와 경제계의 유착관계가 심각함을 시사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주체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의 제공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군사정권으로부터 지속되어 형성된 고착화된 기업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정경유착 문제는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할 기업과 정부간의 부패 문제임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4> 전문가 집단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평가항목 (Consistency Ratio=0.0001)				평가지표									
항목	중요도	Data Matrix			지표체계	중요도	Data Matrix						
		1	2	3			1	2	3	4	5	6	7
1.합법성	0.322	1.000	0.847	1.079	1. 탈세	0.050(0.154)	1.000	0.712	0.930	1.095	0.902	0.974	.
					2. 공금유용	0.065(0.201)	1.404	1.000	1.222	1.277	1.202	1.192	.
					3. 뇌물수수	0.054(0.168)	1.076	0.818	1.000	1.042	1.100	1.076	.
					4. 주식내부자거래	0.051(0.159)	0.913	0.783	0.960	1.000	1.003	1.127	.
					5. 돈세탁	0.053(0.163)	1.108	0.832	0.909	0.997	1.000	1.079	.
					6. 주식위장분산	0.050(0.155)	1.026	0.839	0.929	0.887	0.927	1.000	.
2.투명성	0.376	1.180	1.000	1.232	1. 분식결산	0.061(0.161)	1.000	1.060	1.066	1.239	1.422	1.182	1.025
					2. 이중장부작성	0.054(0.144)	0.944	1.000	0.826	1.122	1.245	1.069	0.960
					3. 비자금	0.058(0.155)	0.939	1.211	1.000	1.089	1.196	1.116	1.128
					4. 무자료거래	0.050(0.134)	0.807	0.891	0.919	1.000	1.132	0.827	1.026
					5. 과도한 접대비	0.046(0.137)	0.703	0.803	0.836	0.884	1.000	0.898	0.872
					6. 경영권 남용	0.051(0.121)	0.846	0.935	0.896	1.209	1.114	1.000	0.779
					7. 소액주주 권리침해	0.056(0.148)	0.975	1.042	0.886	0.974	1.147	1.284	1.000
3.건전성	0.302	0.927	0.811	1.000	1. 정치자금 제공	0.058(0.191)	1.000	1.130	1.256	1.327	1.110	1.125	.
					2. 유해 제품 제공	0.052(0.171)	0.885	1.000	1.155	1.184	0.958	1.024	.
					3. 기업 비밀 침해	0.044(0.146)	0.796	0.866	1.000	0.926	0.818	0.889	.
					4. 관계사 지급보증	0.045(0.148)	0.754	0.844	1.081	1.000	0.841	0.874	.
					5. 고의적 임금체불	0.052(0.172)	0.901	1.044	1.223	1.189	1.000	0.907	.
					6. 환경오염	0.052(0.172)	0.889	0.976	1.125	1.144	1.103	1.000	.

2) 일반인 집단

(1) 1단계 평가항목간의 중요도

본 절은 이전 절에서 논의된 전문가 집단의 기업부패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 가지 평가항목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1단계로 평가항목간의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평가항목들 중 건전성의 중요도가 0.373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투명성이 0.326, 합법성이 0.301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들의 기업부패에 대한 지각이 건전성 37%, 투명성 33%, 합법성 30%로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전문가 집단과의 상이하여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던 ‘건전성’ 항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 경영의 건전성[혹은 사회적 책임(공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높아 기업이 이러한 활동들을 중시하여야함을 암묵적으로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관성 비율은 0.0062로 나타나 변수 측정시의 신

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2) 2단계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본 연구의 기업부패에 대한 일반인들의 세 가지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지표간의 중요도는 <표 5>의 우측에 보였다. 19개 평가지표간의 전반적인 중요도 평가를 살펴보면 ‘유해제품 제공’이 0.072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정치자금 제공, 기업 비밀 침해, 고의적 임금 체불, 공급유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건전성내의 평가지표들이 다른 항목들의 평가지표들보다 중요하게 평가되었고 투명성내의 평가 지표들은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은 유해 제품 제공, 정치자금 제공 등 기업 경영의 사회적 활동 혹은 윤리적 행위를 중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은 전문가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오늘날의 기업 조직들은 합법성과 투명성만으로 기업 경영을 운용하기에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은 경영 활동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표 5> 일반인 집단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평가항목 (Consistency Ratio=0.0062)					평가지표								
항목	중요도	Data Matrix			지표체계	중요도	Data Matrix						
		1	2	3			1	2	3	4	5	6	7
1.합법성	0.301	1.000	0.849	0.878	1. 탈세	0.056(0.187)	1.000	1.113	1.187	1.209	1.130	1.148	.
					2. 공급유용	0.057(0.190)	0.899	1.000	1.286	1.267	1.200	1.304	.
					3. 뇌물수수	0.051(0.170)	0.842	0.777	1.000	1.259	1.211	1.181	.
					4. 주식내부거래	0.047(0.156)	0.827	0.789	0.795	1.000	1.089	1.241	.
					5. 돈세탁	0.047(0.157)	0.885	0.833	0.826	0.918	1.000	1.296	.
					6. 주식위장분산	0.042(0.139)	0.871	0.767	0.847	0.806	0.771	1.000	.
2.투명성	0.326	1.178	1.000	0.802	1. 분식결산	0.050(0.154)	1.000	0.957	1.194	1.063	1.156	1.146	1.075
					2. 이종장부작성	0.054(0.165)	1.045	1.000	1.175	1.191	1.247	1.272	1.243
					3. 비자금	0.050(0.155)	0.837	0.851	1.000	1.218	1.322	1.276	1.238
					4. 무자료거래	0.049(0.149)	0.941	0.840	0.821	1.000	1.297	1.302	1.308
					5. 과도한 접대비	0.043(0.133)	0.865	0.802	0.756	0.771	1.000	1.282	1.208
					6. 경영권 남용	0.040(0.122)	0.872	0.786	0.784	0.768	0.780	1.000	1.090
					7. 소액주주 권리침해	0.040(0.122)	0.930	0.805	0.808	0.764	0.828	0.917	1.000
3.건전성	0.373	1.139	1.247	1.000	1. 정치자금 제공	0.069(0.185)	1.000	1.017	1.297	1.216	1.135	1.055	.
					2. 유해 제품 제공	0.072(0.193)	0.983	1.000	1.275	1.255	1.246	1.288	.
					3. 기업 비밀 침해	0.060(0.162)	0.771	0.784	1.000	1.282	1.037	1.071	.
					4. 관계사 지급보증	0.056(0.151)	0.823	0.797	0.780	1.000	0.994	1.114	.
					5. 고의적 임금체불	0.059(0.159)	0.880	0.802	0.965	1.006	1.000	1.151	.
					6. 환경오염	0.056(0.150)	0.948	0.777	0.933	0.898	0.869	1.000	.

## (3) 합법성내의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합법성 항목의 평가지표들인 탈세, 공금유용, 뇌물수수, 주식 내부자 거래, 돈세탁, 주식 위장 분산에 관한 일반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결과는 ‘공금유용’이 0.190 수준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탈세, 뇌물수수, 돈세탁, 주식 내부자 거래, 주식 위장 분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평가지표의 중요도가 0.139에서 0.190의 값을 나타내어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 집단과 비교하여 공금유용, 뇌물수수, 돈세탁 등은 합법성 항목 내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 유사하나, 탈세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평가된 것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 (4) 투명성내의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투명성 항목 내 평가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는 ‘이중장부 작성, 비자금, 분식결산, 무자료거래, 과도한 접대비, 소액주주 권리 침해, 경영권 남용’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소액 주주 권리침해, 경영권 남용의 상대적 중요도의 가중치가 0.122, 0.122로 나타나 큰 차이 없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결국 일반인들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평가와 유사하여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보다 회계 투명성 요인을 더 중시하고 있다. 결국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회계 관련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인식됨에 따라 기업 회계와 관련된 부정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의 개발 및 내·외부 감시와 감사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5) 건전성내의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건전성의 세부 평가지표들에 대한 평가 결과는 ‘유해 제품 제공, 정치자금 제공, 기업비밀 침해, 관계사 지급 보증, 고의적 임금체불, 환경오염’ 순으로 평가되었다. 건전성 항목 내에서는 ‘유해제품 제공’의 중요도가 0.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유해 제품 제공과 2순위의 ‘정치자금 제공’간의 편차는 크지 않아 두 평가지표들이 건전성 내에서 주요 지표들로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인 집단들도 정치 자금 제공을 기업부패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전문가 집단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전문가 집단과 달리 유해제품 제공을 더 중요한 기업부패 문제로 인지하고 있다.

## 3) 전체(전문가+일반인 집단)

## (1) 1단계 평가항목간의 중요도

<표 6>은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의 전체 응답자들이 인지한 세 가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간의 중요도를 나타낸다. 평가항목 중 건전성과 투명성의 각 중요도가 각각 0.349, 0.343으로 나타나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대략적으로 전체 응답자들의 기업부패 문제의 세 가지 평가항목은 건전성 35%, 투명성 34%, 합법성 30%로 평가되고 있다. 일관성 비율은 0.0031로 나타나 변수 측정시의 신뢰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 2단계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표 6>에서 세부 평가지표간의 전반적인 중요도 평가는 19개의 평가지표 중 ‘정치자금 제공’이 0.065 수준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유해 제품 제공, 공금유용, 고의적 임금체불, 환경오염, 기업 비밀 침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건전성 항목 내 평가지표들이 타 항목 내 지표들에 비해 보다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결국 건전성 항목 내의 지표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3) 합법성내의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전체집단의 합법성 항목 내 세부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는 ‘공금유용’이 0.194 수준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탈세, 뇌물수수, 돈세탁, 주식 내부자 거래, 주식 위장 분산’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합법성 내에서 중요하게 인식된 평가지표들은 ‘공금유용 및 탈세’ 등이 주요 지표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합법적인 세금 납부와 경영자가 사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전용/유용하려는 의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측면의 방안들이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전체 집단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평가항목 (Consistency Ratio=0.0031)					평가지표								
항목	중요도	Data Matrix			지표체계	중요도	Data Matrix						
		1	2	3			1	2	3	4	5	6	7
1.합법성	0.309	1.000	0.848	0.940	1. 탈세	0.054(0.175)	1.000	0.959	1.094	1.170	1.048	1.087	.
					2. 공금유용	0.060(0.194)	1.043	1.000	1.265	1.271	1.201	1.266	.
					3. 뇌물수수	0.052(0.170)	0.914	0.791	1.000	1.182	1.173	1.145	.
					4. 주식내부자거래	0.049(0.157)	0.855	0.787	0.846	1.000	1.060	1.202	.
					5. 돈세탁	0.049(0.159)	0.954	0.833	0.853	0.944	1.000	1.220	.
					6. 주식위장분산	0.045(0.144)	0.920	0.790	0.874	0.832	0.820	1.000	.

2.투명성	0.343	1.179	1.000	0.926	1. 분석결산	0.054(0.156)	1.000	0.990	1.150	1.119	1.239	1.158	1.058
					2. 이종장부작성	0.054(0.158)	1.001	1.000	1.045	1.167	1.246	1.200	1.140
					3. 비자금	0.053(0.155)	0.870	0.957	1.000	1.173	1.279	1.220	1.201
					4. 무자료거래	0.049(0.144)	0.894	0.857	0.852	1.000	1.239	1.119	1.207
					5. 과도한 접대비	0.044(0.129)	0.807	0.802	0.782	0.807	1.000	1.139	1.084
					6. 경영권 남용	0.043(0.127)	0.863	0.833	0.819	0.893	0.878	1.000	0.975
					7. 소액주주 권리침해	0.045(0.130)	0.945	0.877	0.833	0.829	0.923	1.026	1.000
3.건전성	0.349	1.063	1.081	1.000	1. 정치자금 제공	0.065(0.187)	1.000	1.054	1.283	1.252	1.127	1.078	.
					2. 유해 제품 제공	0.065(0.186)	0.949	1.000	1.234	1.231	1.142	1.193	.
					3. 기업 비밀 침해	0.055(0.157)	0.779	0.810	1.000	1.150	0.958	1.007	.
					4. 관계사 지급보증	0.052(0.150)	0.799	0.812	0.869	1.000	0.940	1.028	.
					5. 고의적 임금체불	0.057(0.164)	0.888	0.876	1.044	1.064	1.000	1.063	.
					6. 환경오염	0.055(0.157)	0.928	0.838	0.993	0.973	0.941	1.000	.

(4) 투명성내의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전체 집단의 투명성 항목 내의 평가지표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종장부 작성, 분석결산, 비자금, 무자료거래, 소액주주 권리침해, 과도한 접대비, 경영권 남용’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종장부 작성, 분석결산, 비자금’은 대략적으로 0.16으로 나타나 상위 수준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주주 권리 침해, 과도한 접대비, 경영권 남용은 0.13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분석결산, 비자금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인과 전문가의 두 집단의 결과와 유사하다. 분석결산, 비자금 등의 회계 투명성 지표들이 상위에 기록되고 있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5) 건전성내의 평가지표간의 중요도

전체 집단의 건전성 항목내 평가지표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결과는 ‘정치자금 제공, 유해 제품 제공, 고의적 임금체불, 환경오염, 기업비밀 침해, 관계사 지급 보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의 평가와 유사하여 기업 대 정부 관계에서 고질적인 부패 문제라 할 수 있는 “정경유착” 문제는 여전히 주요한 기업부패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업종별 부패 수준에 대한 평가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7개 업종의 전반적인 기업부패 수준을 분석한다. 이는 이전 절과 동일하게 전문가, 일반인, 그리고 전체(전문가+일반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업종들 간의 기업부패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지표들의 부패 수준도 함께 분석하였다.

### 1) 전문가 집단

전문가 집단의 7개 업종별 부패수준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업종별로 비교할 때, 건설업의 부패지수가 5.42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유통업, 의약품 제조업, 섬유업, 전자/통신 장비 제조업, 기계관련 제조업, 전기관련 제조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의 부패지수가 타 업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설업 다음 순위인 유통업의 부패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건설업과 유통업이 매우 부패한 업종들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합법성, 투명성, 건진성으로 구성된 기업부패지수의 세부 평가지표들에 대한 업종별 평가 결과도 <표 7>에 함께 나타내었다. 업종별 세부 평가지표의 평가 값은 각 항목별 평가에 해당 항목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이다. 결국 전문가들의 업종별 기업부패지수의 세부 평가지표들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합법성내의 '공금유용'(합계=2.04)이 섬유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가장 많이 부패한 평가지표로 평가하였다. 다음 순위의 평가지표들로는 '분식결산(합계=1.91), 정치자금 제공(합계=1.85), 비자금(합계=1.84), 이중장부 작성(합계=1.73)'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합법성내의 '공금유용' 지표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지만, 2~5순위 내 분식결산, 비자금, 이중장부 작성 등은 투명성 내의 평가지표들이 존재함에 따라 업종별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주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투명성 항목 내에서는 분식결산, 비자금, 이중장부 작성의 순으로 기업회계 투명성에 관한 부패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경영권 남용, 소액 주주 권리 침해 등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다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절의 AHP 기법에 따른 기업부패지수의 세부 평가지표들에 대한 중요도 평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유통업의 세부 평가지표들에 대한 부패 정도는 타 업종 대비 대부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 업종별로 섬유업의 경우는 분식결산이 0.267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공금유용, 비자금, 환경오염 순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0.253~0.259 정도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관계사 지급 보증과 기업 비밀 침해가 0.183과 0.185로 나타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은 섬유업에서 4위로 평가되고 있어, 다른 업종과 대비하여

섬유 업종에서의 환경오염은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계관련 제조업의 경우는 공급유용이 0.2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분식결산, 정치자금 제공, 비자금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계사 지급 보증, 기업 비밀 침해가 0.186 수준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 결국 기계관련 제조업은 섬유업과 평가와 유사함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의약품 제조업도 공급유용이 0.284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고 분식결산, 정치자금 제공, 비자금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도 공급유용이 0.380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분식결산, 비자금, 정치자금 제공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관련 제조업은 공급유용이 0.265이며 분식결산, 정치자금 제공, 비자금 등의 순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자/통신 장비 제조업은 공급유용이 0.265이며 분식결산, 정치자금 제공, 비자금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전문가 집단의 업종별 부패 수준에 관한 평가

구 분		업종별 부패수준 (평균/표준편차)							
		섬유업	기계 관련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건설업	전기 관련 제조업	전자/ 통신 장비 제조업	유통업	
		4.270 (0.197)	4.177 (0.106)	4.469 (0.136)	5.420 (0.288)	4.095 (0.085)	4.180 (0.118)	4.740 (0.124)	
기업 부패 지수	합 법 성	탈세	0.206	0.204	0.225	0.293	0.199	0.205	0.243
		공급유용	0.259	0.273	0.284	0.380	0.265	0.265	0.320
		뇌물수수	0.228	0.229	0.247	0.316	0.222	0.229	0.256
		주식 내부자 거래	0.212	0.200	0.225	0.279	0.204	0.221	0.248
		돈세탁	0.226	0.216	0.232	0.295	0.213	0.218	0.251
		주식 위장 분산	0.209	0.214	0.216	0.263	0.200	0.209	0.229
	투 명 성	분식결산	0.267	0.260	0.269	0.331	0.247	0.248	0.298
		이중장부작성	0.244	0.228	0.248	0.297	0.230	0.233	0.257
		비자금	0.254	0.246	0.262	0.324	0.241	0.241	0.277
		무자료거래	0.215	0.208	0.226	0.272	0.206	0.208	0.243
		과다한 접대비	0.197	0.195	0.213	0.253	0.184	0.193	0.217
		경영권 남용	0.225	0.218	0.223	0.266	0.208	0.218	0.236
	건 전 성	소액주주 권리침해	0.237	0.230	0.246	0.285	0.229	0.237	0.255
		정치자금 제공	0.245	0.247	0.266	0.318	0.245	0.248	0.276
		유해 제품 제공	0.217	0.210	0.218	0.255	0.213	0.205	0.233
		기업 비밀 침해	0.185	0.186	0.200	0.216	0.178	0.190	0.207
		관계사 지급 보증	0.183	0.186	0.205	0.243	0.190	0.192	0.213
		고의적 임금 체불	0.207	0.206	0.219	0.270	0.205	0.201	0.238
환경오염	0.253	0.221	0.245	0.265	0.214	0.220	0.243		

마지막으로 유통업의 경우는 공급유용이 0.320이며 분식 결산, 비자금, 정치자금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계사 지급 보증, 기업 비밀 침해가 0.213, 0.207로 부패 정도가 낮음에 따라 다른 업종과 비교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업종별로 섬유업을 제외한 기업부패지수들에 대한 평가에서 ‘공급유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관계사 지급 보증 및 기업비밀’은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일반인 집단

일반인들이 평가한 7개 업종에 대한 부패 수준 및 업종별 기업부패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지표들에 대한 평가는 <표 8>와 같다. 업종별 부패 수준에 관한 평가는 건설업이 5.016 수준으로 가장 높고 의약품 제조업, 유통업, 전자/통신장비 제조업, 전기관련 제조업, 기계관련 제조업, 섬유업중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은 전문가 집단에서와 동일하게 일반인 집단에서도 부패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결국 건설업종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섬유업종은 전문가 집단의 평가에서 4순위를 차지하였으나, 일반인 집단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표 8> 일반인 집단의 업종별 부패 수준에 관한 평가

구분			업종별 부패수준 (평균/표준편차)					유통업	
			섬유업	기계 관련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건설업	전기 관련 제조업		전자/ 통신 장비 제조업
			4.298 (0.082)	4.326 (0.066)	4.557 (0.111)	5.016 (0.190)	4.428 (0.065)		4.506 (0.110)
기업 부패 지수	합 법 성	탈세	0.232	0.239	0.262	0.299	0.244	0.261	0.273
		공급유용	0.241	0.250	0.269	0.303	0.256	0.253	0.261
		뇌물수수	0.223	0.225	0.242	0.269	0.231	0.236	0.240
		주식내부거래	0.200	0.201	0.218	0.234	0.211	0.213	0.213
		돈세탁	0.202	0.204	0.215	0.238	0.206	0.216	0.211
		주식위장분산	0.182	0.184	0.192	0.203	0.185	0.194	0.189

기업 부패 지수	투 명 성	분식결산	0.217	0.213	0.228	0.251	0.224	0.222	0.231
		이중장부작성	0.234	0.229	0.247	0.270	0.239	0.239	0.254
		비자금	0.219	0.221	0.236	0.262	0.226	0.230	0.239
		무자료거래	0.216	0.209	0.223	0.246	0.218	0.224	0.225
		과대한 접대비	0.191	0.194	0.205	0.226	0.197	0.203	0.198
		경영권 남용	0.172	0.173	0.178	0.197	0.180	0.183	0.179
	건 전 성	소액주주 권리침해	0.170	0.171	0.176	0.195	0.175	0.179	0.181
		정치자금 제공	0.296	0.303	0.314	0.362	0.305	0.316	0.315
		유해 제품 제공	0.307	0.304	0.325	0.346	0.316	0.313	0.324
		기업 비밀 침해	0.259	0.261	0.265	0.284	0.269	0.274	0.265
		관계사 지급 보증	0.237	0.243	0.250	0.277	0.245	0.249	0.247
		고의적 임금 체불	0.253	0.259	0.259	0.289	0.260	0.255	0.265
		환경오염	0.249	0.245	0.253	0.268	0.242	0.246	0.242

결과적으로 건설업은 전문가 및 일반인 집단들에서도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음에 따라 이 업종에서의 개선된 법/제도 및 새로운 시각에서의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 집단의 업종별 기업부패지수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유해제품 제공'과 '정치 자금 제공'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의 순위로는 '기업 비밀 침해, 고의적 임금 체불, 공금 유용'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건전성 항목 내 평가지표들이 타 항목 내 지표들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과 다른 점은 투명성 항목 내 평가지표들에 대한 평가는 낮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투명성 내의 과대한 접대비는 전문가 집단과 동일하게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유통업, 의약품 제조업 등의 부패 정도가 높은 업종의 세부 평가지표들의 평가는 다른 업종과 대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업종별로 살펴볼 때, 섬유업의 경우는 유해제품 제공이 0.31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치자금 제공, 기업 비밀 침해, 고의적 임금 체불 등의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경영권 남용과 소액 주주 권리 침해는 0.17 정도로 낮게 평가받고 있다.

소액 주주 권리 침해, 경영권 남용은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에 관련된 지표로 섬유업종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들에서 낮게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계관련 제조업은 유해 제품 제공이 0.30 수준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치자금 제공, 기업 비밀 침해, 고의적 임금 체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제조업은 유해 제품 제공이 0.32로 의약품 제조업의 부패 정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후의 순위로는 정치자금 제공, 공금유용, 기업 비밀 침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금유용은 의약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3순위를 차지하여, 타 업종에서는 5~6

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부패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는 정치자금 제공이 0.36 수준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고 유해 제품 제공, 공금 유용, 탈세, 고의적 임금 체불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관련 제조업은 유해 제품 제공이 0.32로 가장 높으며 정치자금 제공, 기업 비밀 침해, 고의적 임금체불, 공금유용의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자통신 장비 제조업의 경우는 1순위의 평가지표는 탈세로 0.48의 값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식 위장 분산, 분식결산, 뇌물수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치자금 제공은 0.24로 부패 정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통업은 유해제품 제공이 0.32로 1순위의 지표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치자금 제공, 탈세, 고의적 임금 체불, 기업 비밀 침해의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 탈세는 유통업에서 3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업종들과 비교하여 부패 정도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인들의 7개 업종들에 대한 기업부패의 세부 평가지표들에 대한 평가는 유해 제품 제공, 정치 자금 제공 주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소액 주주 권리 침해와 경영권 남용 등의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평가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 3. 전체(전문가+일반인)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을 합산하여 각 업종별 부패 정도에 관한 업종별 부패수준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는 <표 9>과 같다. 개별 집단들의 평가와 유사하게 1순위는 역시 건설업의 부패수준이 5.016으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으며, 유통업, 의약품 제조업, 전자/통신장비 제조업, 섬유업, 전기관련 제조업, 기계관련 제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부패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지표들에 대한 전체집단의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정치자금 제공’(합계=2.09)이 기업의 부패 정도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순위로는 ‘유해 제품 제공’(합계=1.98), ‘공금유용’(합계=1.90) 등의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부패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지표들에 대한 전체집단의 평가결과는 7개 업종들에서 전반적으로 ‘정치자금 제공’(합계=2.09)이 기업의 부패 정도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유해 제품 제공’(합계=1.98), ‘공금유용’(합계=1.90) 등의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관련된 소액 주주 권리 침해, 경영권 남용 등은 7개 업종 전반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건전성 항목 내 평가지표들이 타 항목의 지표들과 비교해 높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 집단의 평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인들의 표본이 전문가 집단보다 두 배

정도로 커 표본 크기상의 영향력이 일부분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전체 집단의 업종별 부패 수준에 관한 평가

구분		업종별 부패수준 (평균/표준편차)							
		섬유업	기계 관련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건설업	전기 관련 제조업	전자/ 통신 장비 제조업	유통업	
		4.283 (0.133)	4.250 (0.073)	4.515 (0.103)	5.215 (0.237)	4.263 (0.052)	4.343 (0.101)	4.646 (0.107)	
기업 부패 지수	합 법 성	탈세	0.224	0.226	0.249	0.304	0.226	0.238	0.264
		공금유용	0.246	0.257	0.272	0.334	0.256	0.255	0.285
		뇌물수수	0.224	0.226	0.243	0.291	0.225	0.231	0.246
		주식내부자거래	0.204	0.199	0.220	0.253	0.206	0.214	0.228
		돈세탁	0.211	0.207	0.220	0.262	0.207	0.214	0.227
		주식위장분산	0.190	0.194	0.199	0.226	0.188	0.197	0.203
	투 명 성	분식결산	0.234	0.229	0.241	0.280	0.229	0.229	0.256
		이중장부작성	0.240	0.229	0.249	0.284	0.236	0.237	0.256
		비자금	0.231	0.228	0.243	0.285	0.229	0.231	0.252
		무자료거래	0.215	0.208	0.224	0.258	0.212	0.216	0.233
		과다한 접대비	0.193	0.194	0.208	0.238	0.190	0.198	0.206
		경영권 남용	0.190	0.187	0.191	0.220	0.186	0.192	0.198
	건 전 성	소액주주 권리침해	0.191	0.188	0.198	0.224	0.190	0.196	0.204
		정치자금 제공	0.279	0.283	0.299	0.351	0.283	0.290	0.305
		유해 제품 제공	0.274	0.269	0.283	0.316	0.276	0.269	0.292
		기업 비밀 침해	0.232	0.233	0.243	0.262	0.231	0.242	0.248
		관계사 지급 보증	0.217	0.222	0.236	0.271	0.225	0.228	0.240
		고의적 임금 체불	0.235	0.238	0.244	0.287	0.238	0.233	0.258
환경오염	0.255	0.236	0.253	0.271	0.231	0.236	0.247		

전반적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 의약품 제조업, 유통업 등의 부패지수가 높은 업종의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가 타 업종 대비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각 업종별로 살펴 볼 때 섬유업은 정치자금 제공이 0.2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유해 제품 제공, 환경오염, 공금유용, 이중장부 작성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주식 위장 분산, 경영권 남용은 0.19 정도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계관련 제조업의 경우는 정치자금 제공이 0.279 수준으로 가장 높고, 유해 제품 제공, 공금유용, 고의적 임금 체불 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약품 제조업은 정치 자금 제공이 0.279 수준으로 의약품 제조업의 부패수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표라 할 수 있고,

유해제품 제공, 공금유용, 환경오염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는 정치자금 제공이 0.351 수준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공금유용, 유해제품 제공, 탈세, 뇌물수수의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뇌물 수수는 건설업에서 4위를 차지하여, 다른 업종들에서 10~11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전기관련 제조업은 정치 자금 제공이 0.283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유해 제품 제공, 공금유용, 고의적 임금 체불 등의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식 위장 분산, 경영권 남용이 0.188, 0.186 정도로 낮게 평가 받고 있다.

전자/통신 장비 제조업의 경우는 정치자금 제공이 0.290으로 전자/통신 장비 제조업의 부패 수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유해제품 제공, 공금유용, 기업 비밀 침해의 순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의 유통업은 정치자금 제공이 0.3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유해 제품 제공, 공금유용, 탈세, 고의적 임금 체불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7개 업종별 모두에서 정치자금 제공이 업종별 부패수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관련된 지표들인 소액 주주 권리 침해와 경영권 남용은 업종별 부패수준에서의 영향력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V. 결론

본 연구는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관련 부패 문제를 다루었다. 그간의 부패 관련 연구들은 행정 분야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미진하였던 기업부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들의 부패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업부패지수 측정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을 통해 대표적인 7개 업종을 대상으로 부패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업부패 관련 모형은 기존 문헌들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갖는 측정지표들로 구성되었고, 주요하게 계층분석 절차(AHP) 기법에 의한 이원비교방법을 사용하여 평가지표간의 중요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항목(평가지표체계)은 합법성(탈세, 공금유용, 뇌물수수, 주식 내부자 거래, 돈세탁, 주식 위장 분산), 투명성(분식결산, 이중장부작성, 비자금, 무자료거래, 과도한 접대비, 경영권 남용, 소액주주 권리침해), 건전성(정치자금 제공, 유해 제품 제공, 기업 비밀 침해, 관계사 지급 보증, 고의적 임금 체불, 환경

오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을 합한 전체 집단의 평가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의 세부 평가항목들의 중요도 평가결과는 건전성(35%)과 투명성(35%)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합법성이 대략 30% 정도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의 19개 세부 평가지표들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는 “정치자금 제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유해 제품 제공, 공급유용, 고의적 임금체불, 환경오염, 기업 비밀 침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집단의 7개 업종의 부패에 대한 인식에서 건설업이 1순위로 나타났고, 유통업, 의약품 제조업, 전자/통신장비 제조업, 섬유업, 전기관련 제조업, 기계관련 제조업 순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기업부패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지표들에 대한 전체집단의 평가결과는 7개 업종들에서 전반적으로 ‘정치자금 제공’이 1순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유해 제품 제공, 공급유용 등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기업부패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된 부패지표들은 공급유용, 유해제품 제공, 정치자금 제공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였을 때,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 부패하게 된 주요 요인은 기업 경영자(혹은 소유경영자)가 합법성을 위반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지대를 정치권(혹은 국정최고책임자, 정치인, 행정관료 등)과 관련한 부문에 공여함으로써 “정경유착”의 부패 고리를 양산하였다는 점이다. 정경유착은 그간 한국 기업들이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하여 반대급부로 특혜성 인허가, 개발 사업 독점 등을 얻어낸 사례들로 대표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경유착이 두드러지게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군부출신들에 의한 통치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3-4공화국과 5-6공화국(80년대 초~90년대 초) 때의 일이다. 즉, 3~6공화국의 군사 정권은 정당성 획득 차원과 대통령 자신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하였고, 이의 수혈을 재벌 총수들이 담당하여 정치권과 경제 주체 간의 부패 고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부패 없는 청렴한 국가와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기업간의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을 하루 빨리 청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경유착과 관련한 부패의 예방·억제(반부패 교육 측면) 분야, 적발·처벌(반부패 법·제도 측면) 분야, 보상시스템(인센티브 측면) 분야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점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설문을 통한 기업부패지수를 측정함에 표본 대상들의 주관적 인지에 따른 편향(bias)된 답변이 얻어질 수 있고, 기업부패지표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

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보완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방법도 부분적으로 한계점을 갖음에 따라 향후의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미래의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지표체계들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업부패에 대한 인과적(causality)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강명현(1999), 「한국의 소액주주권」,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경실련(2003), 「제13회 경제정의기업상 자료집」.
- 김기찬·김정호·김철호·신철호·조영경·김재은(2002), 「기업윤리경영실태조사 평가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산업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만기·이종수·이창원·김태일(1998), 「AHP 기법을 이용한 시·도 교육청 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교육부 용역보고서.
- 김정동(2000), 「한국의 기업 윤리-기업 재무의 윤리적 과제」, 박영사.
- 노화준·노시평·김태일(1991),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합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평가요소의 개발과 가중치 설정,” 한국정책학회보, 5, 30-54.
- 대한상공회의소(2004), 「글로벌기업의 윤리경영현황과 경영성과 연구」.
- 도태영·류근관(2000), “지급보증의 분석 모형 및 정책적 함의,” 「규제연구」, 9, 1-32.
- 박정수·강신욱·송경모·안동규(2000), 「기업부패지수 측정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SIT 연구보고서.
- 송하울(1999), 「부패와 경제학」,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원혜욱(2001), 「돈세탁의 유형과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수희(2002), 「기업투명성과 기업가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종영(1998), “환경경영감사제도의 내용,” 「법제연구」, 14, 25-35.
- Ackerman, S. R.(2002), “Grand Corruption and the Ethics of Global Busines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6, 1889-1918.
- Argandona, A.(2001), “Corruption: the Corporate Perspective,”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10, 163-175.
- Barry, V.(1983), Moral Issues in Business, Belmont. Calif: Wordsworth Publishing Co,

- Blanke, J., Paua, F., and Martin, X. S.(2004), The Growth Competitiveness Index: Analyzing Key Underpinnings of Sustained Economic Growth,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Clinard, M. B.(1990), Corporate Corruption-The Abuse of Power, Prager Publishers.
- Fantaye, D. K.(2004) "Fighting Corruption and Embezzlement in Third World Countries," *Journal of Criminal Law*, 68, 170-176.
- Gupta, S., Davoodi, H., and Alonso-Terme, R.(1998), Does Corruption affect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IMF Working Paper, <http://www.imf.org/>
- Habib, M., and Zurawicki, L.(2001), "Country-Level Investments and the Effects of Corruption-Some Empirical Evidence,"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0, 687-700.
- Husted, B.(1999), "Wealth, Culture, and Corrup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0, 339-360.
- Jacobs, J. B.(2004), "Corruption and Democracy," *Phi Kappa Forum*, 84, 21-25.
- Kaufmann, D., and Siegelbaum, P.(1996), "Fighting Corruption and Embezzlement in Third World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0, 419-458.
- Kaufmann, D., Reinikka, F., and Biletsky, S.(2002), Assessing Governance: Diagnostic Tools and Applied Methods for Capacity Building and Action Learning, World Bank Research Working Paper, <http://www.worldbank.org/wbi/governance/>
- Mauro, P.(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 681-712.
- Myrdal, G.(1968),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Harmondsworth: Pelican Book.
- Porter, M. E.(2003), Building the Microeconomic Foundations of Prosperity: Findings from the 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Reinikka, R., and Svensson, J.(2002), Measuring and Understanding Corruption at the Micro Level,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Reinikka, R., and Svensson, J.(2003), Survey Techniques to Measure and Explain Corrup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Saaty, T.(1980),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New York.
- Saaty, T. and Kearns, K. P.(1985), Analytical Planning: The Organization of

Systems, New York: Pergamon Press, Inc.

Tanzi, V.(1998), Corruption Around the World: Causes, Consequences, Scope, and Cures, IMF Working Paper.

Tanzi, V., and Davoodi, H. R.(2000), Corruption, Growth, and Public Finances, IMF Working Paper.

Transparency International(TI),(2002), Bribe Payers Index (BPI), <http://www.transparency.org/>

저자약력 : 이정섭은 현재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외국어대 경영학 학사, 외국어대 경영학 석사, 성균관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윤리경영, IT와 투명성,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지식경영, MIS 계획과 통제, IT와 사용자행동 등이다.